

경기도

경기소방2본부 '119무료급식' 1만그릇 돌파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4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해 주는 '경기무한돌봄 119 한술밥'이 1만 그릇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방2본부는 이날 중복을 맞아 기증받은 닭과 인삼, 엄나무, 은행 등을 넣은 삼계탕을 대접했으며 7월 생일을 맞은 10명에게 파티도 열어줬다.

소방2본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의정부시 가능역 광장에서 매주 3회 119 한술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1일 200명을 계획했으나 현재 450명이 넘게 몰리고 있다.

또 119 한술밥에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코레일 수도권북부지사, 의정부 여성의용소방대가 참여해 음식재료 구입, 장소·부대시설,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119 한술밥에서는 무료 급식 이외에 의료상담 및 약품 조제, 이·미용 서비스, 심리상담, 건강 체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태백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조금한 방심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가축분뇨처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가 다량으

로 발생하는 소, 돼지, 닭 등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분뇨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쳤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중단 또는 처리시설이 불량하거나 운영실태가 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동안 보완(개선)토록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올해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34건 선정

충청남도는 지난 7월 15일 올해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12개 업체 3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가공식품 5개 업체 22건(참사랑식품(이재영) 된장·청국장, 소이빌(강명화) 된장·간장·고추장, 판교농협(조남일) 표고버섯가루, 충청종합식품(안미옥) 포기김치 등 김치류 10종, 가나다 푸드시스템(전문식) 배추김치 등 김치류 6종 ▲농산물 4개 업체 9건(허니머쉬(조명희) 새송이버섯, 바우농원(홍병식) 유기농·머루포도 및즙, 당진사과연구회영농조합법인(현상익) 해나루 사과, 아우내농업협동조합(한창섭) 백태·적두·기장·참쌀·흑미 ▲축산물 3개 업체 3건(벤엘금산 육가공(전희정) 돈육, (주)육성(한성희) 닭고기, 계림농장(김명선 계란) 등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 품질추천 '으뜸 Q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총 172개 업체 270건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강화를



사·도·소·식

위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 등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 받는 충남도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53건을 지정 운영해 48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4개 업체 240건에 5,02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함으로써 충남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도지사 품질추천 제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품질을 추천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199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해 왔다.

경상남도

가축 고온 스트레스 '주의보' 발령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가축 사양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장마가 물러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혹서기에 대비한 가축 종류별 고온기 피해예방대책 수립과 사양관리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 지역별 담당지도사 지정과 취약농가 순회점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7월 15일 밝혔다.

경남 농기원에 따르면 닭의 사육 적정온도와 고

온 임계온도는 16~24℃, 30℃이다. 따라서 축사 환경을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사내 온도가 적온보다 높게 되면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게 돼 발육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고온임계온도보다 높아졌을 경우는 발육은 물론 번식장애가 오고 질병발생증가와 폐사 등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축사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환기가 있는데, 환기의 효과는 축사내 과다한 열을 제거하고 필요 이상의 습기 제거와 함께 먼지농도도 최소화해줌으로써 가축 호흡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름철 고온피해가 돼지나 닭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돼지와 닭은 공통적으로 땀샘이 퇴화되어 있어 열 발산이 원활하지 않아 고온장애에 민감하고 이들은 보통 밀집사육이 보편화 돼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계사에 대해서는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천장에 스티로폼을 이용한 단열시설 설치와 물분무장치 설치로 복사열을 방지하는 방법을 환기 시설과 함께 운용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금류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경남도가 구제역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7년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시 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둬 현재까지 청정화를 유지하



고 가금류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7월 14일 2/4분기 경상남도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가축질병 발생 동향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질병 발생상황을 전망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시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현재까지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시·군과 생산자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질병예찰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축산진흥연구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 농가당 17마리씩 시료를 채취, 상시 예찰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올 연말 완공목표로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생물안전 3등급(BL3) 인플루엔자 정밀검사용 전문 실험실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포항시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39억6천만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배합사료가격이 지난해에만 7번에 걸쳐 50%나 오른 데 이어 올 1월 또다시 10%나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사료가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 사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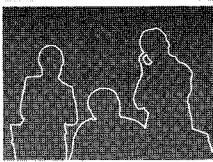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연리 1%의 저금리로 한우를 비롯한 소사육 농가는 1억원에서 2억원, 돼지사육농가는 2억원, 닭·오리 사육농가는 5천만원에서 2억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로 사육규모와 사료구매실적을 고려해 지원해 준다.

상환조건은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돼지 등 여타가축은 2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연말까지이고, 농가당 지원단가는 두당 한육우·낙농은 120만원, 양돈은 10만원, 양계는 650원, 오리는 3천원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종 기타가축은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양봉까지 확대했으며, 지원품목도 종전 배합사료와 섬유질 사료에서 조사료, 낱사료까지 넓혔다.

또 지난해 대출받은 농가는 축종별 지원한도 범위 내 지원 가능하며,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대출취급기관발행 신용조사서를 첨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고 인근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Monthly Korean Chicken MKC

시·도·소·식

경주시, 가축질병 예방에 주력

전국 가축사육 최대 집산지인 경주시는 무더위로 인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기 쉬운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절기 무더위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의 18명을 동원,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방문 및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또한 시 축산과에서는 자체 질병발생신고센터 및 가축위생시험소 내 진단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축산과에서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방목금지 및 차양막을 설치토록 하고 축사내 선풍기나 펜을 이용한 강제환기를 실시할 것과 소독철저 및 청결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료에 곰팡이 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시켜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장마철에는 축사내부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축사 내·외부에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

축산농가 특별 사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특별

사료 구매자금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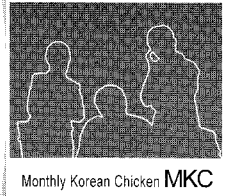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소 사육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 자금 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양계와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1천77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7월 2일 밝혔다.

또한 생산량이 증대된 청보리 등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구매시에도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기타 가축의 지원대상에 양봉농가를 포함시키는 등 신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조건은 연 1% 저리로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농가당 지원한도 : 소·돼지·닭·오리 200백만원, 기타가축 30백만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두수 등을 검토해 자금을 연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농가특별사료구매 자금을 희망하는 농가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겨울철 유희지, 간척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2010년 청보리 동계 사료작물을 2만3천ha로 늘려 우수한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조사료 급여비율을 48%에서 60%까지 개선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85%에서 90% 이상 되도록 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성군 '사랑의 효도 닭' 전달

전남 보성군 미력면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중북을 앞두고 각 마을 경로당에 '사랑의 효도 닭'을 전달했다.

미력면에 따르면 '사랑의 효도 닭' 전달은 미력면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수시책으로 중북에 맞춰 16개 마을 경로당 및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닭 100마리와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사랑의 효도 닭' 행사는 미력면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하절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닭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닭을 전달받은 마을 경로당 관계자는 "미력면과 주민자치위원들 덕분에 이번 중북은 지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맛있는 음식과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뜻있는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군산철새조망대, 동물가족 '무상 분양'

전북 군산철새조망대에서 사육하던 닭, 꿩, 토끼 등 다양한 동물가족들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로 무상 분양된다.

군산시는 지난 7월 19일 "분양되는 동물들은 철새조망대 내 부화체험관에서 부화한 닭과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전시효과가 떨어지는

꿩과 오리, 자연번식에 의해 개체수가 급증한 토끼 등 총 120마리"라고 밝혔다.

이 동물들은 아동복지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분양돼 수용자들이 직접 먹이를 먹이고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철새조망대 최창신 사육사는 "일반 시민들이 분양 받기를 원하면 번식하여 자란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분양된 동물들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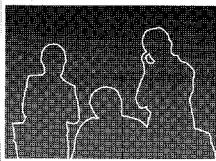
제주도

연내 가금전염병 청정화지역 선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전염병 청정화 3개년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악성 가금전염병인 뉴캐슬병 근절 사업이 연내 마무리된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07년 71농가 4,961건, 지난해 84농가 7,146건, 올해 상반기 78농가 9,041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 뉴캐슬병 병원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데 이어 8, 9월에 9,000건의 2차 검사를 완료한 뒤 청정화 선포를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검사는 산란계 32농가 4,226건, 육계 17농가 2,529건, 토종닭 19농가 1,256건, 오리·거위 등 11농가 990건 등이고 포획이 어려운 야생조수인 경우에는 폐사축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Monthly Korean Chicken MKC

사·도·소·식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금류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뉴캐슬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농가 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가공품 표시기준 점검 강화

제주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6월 29


일 '축산물의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고시함에 따라 제주시내 축산물 가공업소 82개소 및 판매업소 483개소에 대해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7월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8월 말까지 축산물 하절기 위생유통 점검 등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축산물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포장육에도 도축장명을 표시해야 하며,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사용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 해선 안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표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최고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

